



여름철 파리 문제, 살충제 없는 친환경제품으로 승부



▲ 좌부터 최인호 부장, 김우수 사장, 전영수 상무이사, 황희영 사원이 자사 해충살충제를 홍보하고 있다.

자|난해 파리박멸을 위해 사용해오던 일부 사료첨가제 사용이 제한되면서 파리를 퇴치 할 수 있는 방안 모색이 다각도로 연구되고 있다.

그동안 무분별하게 사용해온 해충(파리)살충제는 맹독성 유해화학물질로서 환경호르몬을 유발시켜 사람과 가축에게 암, 유산, 기형아출산, 저성장, 스트레스, 정자수감소 등 엄청난 피해를 주고 있어 그 대안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그러나 국내 중소기업에서 대한 민국 나아가 세계최초로 살충제가 전혀 없는 친환경 해충(파리)스프레이 유인포충제라는 특허기술로 제품개발에 성공하여 3월부터 전국에 출시하면서 업계에 비상한 관심을 보이고 있다.

전국 판매망 구축 완료단계

해훈케미칼(주) (상무이사 전영수)는 지난 3월말 현재 제주도를 포함해 전국 지역별 총판, 대리점 계약이 80% 이상 완료되고 4월중에는 100% 판매망이 구축될 것으로 보고 있으며, 국내 지역별 총판, 대리점은 동물가축 약품의 수의사(원장)와 전문 영업조직으로 축산농가의 해충방제 컨설팅 지원 및 매출증대가 기대 된다고 밝혔다.

이와는 별도로 미국, 호주, 동남아 국가의 바이어와 수출 상담이 진행되고 있어 올 하반기부터는 본격적으로 수출이 이루어 질것으로 내다봤다.

터치킬라-에스 특허(실용신안등록, 상표출원)

해훈케미칼(주)는 해충 스프레이 유인 포충제와 관련된 국내특허(실용신안등록 및 특허출원, 상표출원)와 PCT국제특허 출원을 통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세계적인 친환경 제품으로 업계에서 평가받고 있다.

전국의 각 지역 가축 전문 수의사와 축사내부, 외부에서 제품에 대한 효과 테스트를 지난 1년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 제품의 우수성과 신뢰성을 인정받았다.

'터치킬라-에스'는 환경호르몬을 유발하는 유해성 독성물질인 살충제 성분을 전혀 사용하지 않았으며 사람과 가축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사용하기 편리한 스프레이 캔 용기 제품이며 오존층 파괴물질을 사용하지 않은 친환경



▲ 국내 시장과 수출확대를 위한 회의장면

제품이다.

이 제품은 해충(파리)의 Sex페르몬인 강력한 유인제인 무스카몬이 함유되어 있어 주의에 있는 파리를 모이게 하고, 유인된 파리는 강한 접착물질이 스프레이 도포된 비닐에 달라붙어 손쉽게 제거하게 된다. 특히 실외는 물론 실내에서도 코팅된 종이나 비닐에 뿌려주면 파리를 손쉽게 제거할 수 있어 스프레이 살충제의 피해로부터 벗어나 사용하는데 전혀 부담이 없고 매우 편리하다.

그동안 국내에는 일명 '끈끈이' 제품이 오랫동안 시중에 판매되고 소비자로부터 좋은 반응을 보여 왔다. 그러나 기존의 제품들은 사용하기 불편하고 시각적으로 혐오감을 주어 식당이나 식품공장 등에서 사용을 꺼려왔다. 또한 제품 크기가 작아 파리가 많은 장소에는 수시로 갈아줘야 하는 번거로움과 함께 경제성에서 부담이 되어 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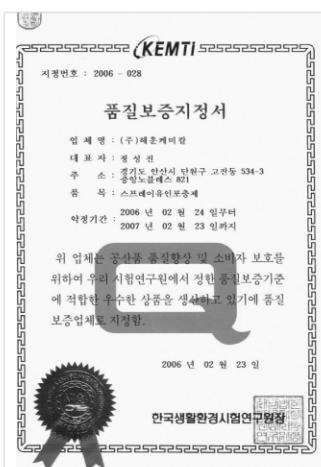
품질인증(Q-마크 획득, 한국생활환경시험연구원)

해훈케미칼(주)는 지난 2006년 2월 국가공인 인증기관인 한국생활환경시험연구원으로부터 까다로운 품질검사를 거쳐 품질인증(Q-마크)을 획득했다.

그동안 시중에 판매되어 왔던 해충(파리) 방제 제품은 공인기관에서 품질인증 허가를 받은 것이 거의 없어 소비자 불만이 많았으나 이제부터는 축산농가 및 소비자들로 하여금 제품의 우수성과 신뢰성을 통해 제품에 대한 만족도가 높아질 것으로 보고 있으며, 정부 관공서, 지방자치단체, 축산관련 단체와 공동구매에 대한 업무협의가 진행되고 있어 그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HACCP제도 시행에 따른 친환경 해충(파리) 포충제

HACCP(Hazard Analysis Critical Control Point)는 식품위해요소중점관리제도이다.



▲ 한국생활환경시험연구원으로부터 품질인증(Q-마크)을 획득했으며 '2006 대한민국 산업별 브랜드 파워'에도 선정되었다.



축산업계에서 양돈분야는 HACCP제도 인증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양계, 낙농, 한우 분야에서도 아직 매뉴얼이 완성되지는 않았지만 지금까지 위생, 방역 및 사양에서 일정 기준이 상의 관리와 기본 프로그램에 흐름을 정리하면 외부인증(HACCP)을 받는데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최근 신종 유해물질(환경호르몬)로 인한 식품 안전사고로 위생과 안전 축산물에 대한 소비자 관심이 증대되고 있다. 웰빙시대의 소비자들은 이제는 축산물을 선택할 때 양보다는 질, 식품안전에 더욱 비중을 두고 있다. 또한 국제적으로도 식품안전관리기준이 강화되고 있어 국내 축산물의 해외 수출을 위해서도 안전성 확보는 가장 중요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회사관계자는 "HACCP제도 인증에 있어 우리 축산농가나 식품가공업체에서 가장 신경을 써야 할 부분을 위생환경과 방역이라며 그동안 무분별하게 사용해온 환경호르몬을 유발하는 유해 독성물질인 살충제 사용을 중단하여야 한다"며, "그동안 관공서나 지방자치단체, 축산농가에서 해충방제에 이를 대체할 만한 뚜렷한 대

안이 없어 형식적으로 보건소나 자체 방역기기 등을 통해 연막방역을 실시해 오고 있으나, 이는 해충방제에는 효과가 거의 없이 사람이나 가축에 환경호르몬만 유발시키는 악영향을 주고 있다."고 강조 했다.

2005년 9월 2일자 한겨례신문 보도에 따르면 식약청의 살충제 허가 등록을 받지 않은 무허가 방역약품이 사용되어 왔으며, '전국의 기초자치단체 보건소 10곳 가운데 6곳 꼴로 살충제에 주로 쓰이는 4가지

환경호르몬 의심물질이 들어간 연막소독 약품을 뿐리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해훈케미칼(주) 전영수 상무이사는 양계농가 등 축산농가에서 HACCP제도 정착을 위해 유독성 내분비 교란 화학물질인 환경호르몬을 유발하는 살충제 사용을 억제하고 살충제가 없는 친환경 해충(파리)스프레이 유인 포충제 '터치 킬라-에스'를 사용함으로서 식품안전사고에 대비할 것을 강조하였다.

지긋지긋한 파리를 전멸하라

전국의 축산농가는 지금부터 올 한해 파리와의 전쟁에 돌입한다. 잡아도 잡아도 끝이 없이 그 숫자가 엄청나게 늘어나는 파리.

파리는 알-유충(구더기)-번데기-성충의 명확한 발육 단계를 갖는 완전변태를 하는 해충이

다. 스폰지형의 특수한 구기를 가진 잡식성인 파리는 동물의 배설물, 분비물, 동식물 사체, 음식물, 사료 등 거의 안가는 곳이 없으며, 일정한 수분만 함유되어 있으면 여기에 알을 낳는다. 파리는 주간 활동성이며, 밤에는 천정에서 휴식하기를 좋아하며, 노란색 계열을 좋아한다. 집파리는 발육하는데 약 2주일이 소요된다. 파리는 타액과 반소화된 먹은 것을 토하며 구기나 다리에 있는 텔 또는 강모에 오물을 부착하여 오염시키므로 각종 소화기계 전염병을 전파시킨다.

이제부터 우리 축산농가에서는 각종 질병의 매개체인 파리에 대한 고민은 안 해도 될 것 같다. 친환경제품을 연구 개발하는 한 중소기업이 우리 곁에 있기 때문이다.

취재 | 기영훈 기자
theme6017@hanmail.net



깨끗하게 청소하여 질병에서 해방되자

자동화계사 청소대행

원적외선 산업

(맥반석, 견운모, 목초액)

동광축산컨설팅(구 동광공업)

대 표 : 최 성 태
휴대폰 : 011-374-8461~2

사무실 : 경남 양산시 상북면 석계리
전 화 : (055)374-8461~2
팩 스 : (055)375-8461